

청각장애인 “코로나19 수어안내 필요”

장애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1339 문자 안내 제공하지만 충분치 못해

동네의원 전화 상담도 장애인 이용 어려워

청각장애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치료를 받는데 수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 수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동네의원과 지역보건소에서 수어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339 콜센터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문자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벽허물기는 문자서비스가 수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의 경우 환자들이 동네 의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

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음에도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전화로 소통을 하기 힘들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벽허물기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로 정신 없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청각장애인들도 감염증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가 있기에 차별을 진정한다”고 밝혔다.

김원호 기자



영암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영암군보건소는 지난달 1월 7일부터 관내 임산부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관내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 임부들을 위해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은 삼호보건지소, 둘째 주 화요일은 영암군보건소에서 매월 3회(연중사업) 운영한다.

전라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위탁 운영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의료장비를 갖춘 검진 이동버스로 산전기본검사를 비롯한

초음파검사, 태아염색체 이상 및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병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올해부터는 이동형 초음파 장비가 최신형으로 변경 되어 임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출산교실 운영, 산전검진 쿠폰 지원, 출산 후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모유수유 유촉기 대여 등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 부산면 주민자치위 정기회의...복지향상 총력

장흥군 부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영배)는 지난 24일 오전 부산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신규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장 선임,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운영계획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실천 과제 안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성, 효과 등을 검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예방수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2,580만원의 예산으로 풍물교실, 댄스교실, 건강교실 등 운영과 각종 대회 참가 및 부산면민날 행사와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에 참여하여 시연 등을 가질 계획이다.

장흥=위지훈 기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시간제 보육 이용요금 지원

본인부담금 1000원 이용시간(최대 80시간)만큼 지원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은 올해 3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병원 이용 또는 외출, 가사 사정 등으로 단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다

너지 않는 6~36개월 이하의 아동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일 기준 아동과 부모는 모가 광양시에 주소로 두고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시간제 보육 지정기관 어린이집은 광양읍권에 푸른어린이집, 용강어린이집과 중마동권에 한아름어린이집, 지혜샘어린이집, 세종어린이집 총 5개소이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며, 이 가운데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1,000원은 본인부담이다.

신청과 지원 방법은 지정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행복카드를 선결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보육재단에서 다음 달에 개별 계좌로 본인부담금 1,000원을 이용시간(최대 80시간)만큼 지원한다.

황재우 보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맡 놓고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2020년도 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사진비 지원 ▶우리아이 신학기 입학 축하금 지원 ▶뚝!뚝! 찾아가는 어린이 문화공연 ▶보육기관 장난감 세척·소독 사업 ▶질병 감염 예방 아동 무료돌봄 서비스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저소득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 추진

광주 동구가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은 주택 내에서 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주방·싱크대·욕실 등을 보수하고 출입문 경사로·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해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장애가 심한 신체 및 뇌 병변, 시각장애인,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중 방문실태조사를 통해 주택개보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 장애인에게는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